

# ‘남해안 관광벨트’ 지자체 공동대응



20일 오전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해양수산부-남해안권(부산·경남·전남) 정책협의회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전남도제공>

## 전남도·부산시·경남도 협약...관광 상품 개발·제도 정비·홍보 등 통영서 정책협의회...김영록 지사 ‘남해안 종합개발’ 설립 제안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부산시, 경남도가 신속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3개 지자체는 앞으로 조성추진단 구성·운영, 기반시설 연계·확충, 글로벌 브랜드 및 관광 자원·상품 개발, 해양레저관광 관련 제도 정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국제행사 개최 및 공동 홍보 등을 함께 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는 20일 오전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해수부-남해안권 정책협의회’를 열어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수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정책을 밝혔고, 전남·부산·경남 3개 지자체도 2022년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3개 지자체는 뜻을 모아 남해안권을 세계적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구축하기 위해 이날 정책협의회를 열어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역별 관광자원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해수부와 3개 시도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과 전략적 조성 방향을, 3개 시·도는 지역별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남해안은 더 이상 한반도의 끝자락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자 해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서 환태평양시대 ‘신해양·관광·친환경 수도’로 우뚝 설 것”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4개 기관이 원팀이 돼 남해안을 세계 속에 빛나는 해양관광·휴양 중심 거점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날 남해안권 개발이 종합적·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해수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행정안전부 등 6개 정부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스마트공장 구축비 추가 지원

### 광주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및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구축비용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기업이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자동화 설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현재 분사 또는 주사업장이 광주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및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에 선정된 기업이다. 광주시는 시비 9억원 한도로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협약을 통해 구축비용의 일부(총 사업비의 20%이내,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2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미라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올해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과 지원규모가 축소된 만큼 사업 참여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 지원계획을 마련해 제조업 경쟁력과 경영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5·18 정신피해 보상 길 연 기록물 기증

### 시민군 나일성 씨 재판기록물 기록관에...연구·조사 활성화 기대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재판 기록물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됐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지회 회원인 나일성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5·18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록물’을 최근 기록관에 기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록물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육교를 치른 나일성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5·18 정신피해 보상에 관한 재판기록물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 기록, 대법원 확정 판결 기록물이 모두 포함됐다. 나씨 등은 2018년 12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5·18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며, 2019년 5월 9일 헌법재판소에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2항 화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현재는 2년 만인 2021년 5월 27일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합의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 제16조 2항은 ‘민사소송법상 화해 성립으로 명시되지, 정신적 피해는 화해 성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법률 개정으로 나씨 등은 2022년 9월 1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나일성씨는 5·18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를 통해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을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되지 못했다’는 글을 읽고 5·18 정신피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민병로 5·18연구소장은 “나씨 등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 배상 청구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고, 특히 5·18 국가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현재는 2년 만인 2021년 5월 27일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민주화

# 전남도, 해외 상설 판매장 1000만 달러 수출 달성

### 농수산식품 판로 안정·남도음식 세계화 전진기지 육성

전남도가 농수산식품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해외 상설 판매장’이 지난 한 해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남도음식 세계화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외 대형 마트에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으로 입점 운영 중인 상설 판매장은 지난해 새로 개설한 5개 매장을 포함해 전 세계 9개 나라 20개소에 달한다. 이를 통해 전남산 쌀, 딸기, 배, 전복, 김 등 신선 농수산물, 물론 다양한 가공식품까지 약 100여 개 수출 기업의 500여 제품을 판매하는 등 전남 농수산식품의 안정적 판매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남도는 6년째를 맞는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이 전남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

보는 물론 남도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전라남도 브랜드 인지도 향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올해는 17억원을 들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상설 판매장과 상관이 중복되지 않는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매장 9개 개설을 지원한다. 현지 마트에 전남 상설 판매장을 개설해 1년간 총 20만 달러 이상을 수입한 기업에 초기 개설 비용과 판촉행사 비용 등 총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 유통마켓 내 20㎡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현지 구매자와 국내 수출 전문기업을 모집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외 프랜차이즈 기업이 각각의 매장에 운영하는 매장 디자인 콘셉트를 응용

한 ‘전남 상설 판매장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해 모든 상설 판매장에 공통 적용함으로써 상설 판매장의 품격 제고와 함께 ‘남도음식’을 글로벌 브랜드 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개설한 판매장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남 22개 시군과 연계한 특산물 판촉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단골고객 확보를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남도음식만의 제철음식 기획전 등 다양한 판촉행사를 지원한다. 이밖에 ‘전라남도’와 ‘남도음식’의 인지도 향상에 따른 무분별한 명칭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전남 상설 판매장’ 명칭 사용 승인제를 시행해 브랜드 가치 보호는 물론 판매장 운영사의 책임을 높일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첨단3지구 연료전지 우선협상자에 ‘탑솔라’

광주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탑솔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첨단 3지구 산업단지 내 1만 8700여㎡에 39.6MW 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발전소가 준공되면 광주 전체 연간 전력 사용량의 3.6%에 해당하는 319GWh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10만8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생산과 14만 8800t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공사는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돕고 소비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에너지 최적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민권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 만큼 철저히 관리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 반영구적 사용가능
- ➔ 관리의 간소화
- ➔ 낮은 관리비
- ➔ 자연과의 동화
-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